

사회



광주 월산동 상가 화재 ... 10개 점포 태워 2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지하철 돌고개역 인근 한 1층 규모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2억5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PC방과 건강원, 자동차 코팅업소 등 인접한 상가 10개점이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폭염 환자 속출

57명 응급치료·3명 사망 ... 전국의 절반 수준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한층 꺾인다. 처서(處暑) 직전까지도 폭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층을 중심으로 막바지 여름철 건강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에서는 총 57명이 폭염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폭염 환자(325명)의 17.5%에 이른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은 같은 기간 폭염환자가 49명이나 발생해 전국 폭염환자의 15.07%를 차지했다.

전남은 또 폭염환자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의 폭염에 따른 사망자는 전국 사망자(6명)의 절반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지난 1, 2일 각각 영광과 순천에서 일하던 70대 여성과 남성이 농사일을 하다 숨진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선박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무더위 속에 목숨을 잃었다.

광주·전남은 또 8월 중순 이후 되레 폭염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 19일 폭염환자가 2명 발생한 데 이어 20일 3명, 21일 6명, 22일 3명 등이 무더위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았다. 가을철로 접어드는 절

기온 처서 직전 나흘 동안에만 총 14명의 폭염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19일부터 나흘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평균 낮 최고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으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폭염환자를 발생시켰다.

또 광주는 올 들어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한 날짜가 5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일)보다 11일이나 길게 나타난 것도 폭염에 따른 피해 급증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고령층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폭염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60대 이상의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325명의 폭염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93명으로 전체의 28.6%였으며, ▲50대 62명(19.1%) ▲40대 65명(20.0%) ▲30대 42명(12.9%) ▲20대 39명(12.0%) ▲10대 24명(7.4%) 등이었다.

또 전체 폭염환자 가운데 74.8%(243명)는 남성이 것으로 집계돼 '60대 남성'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더위가 한층 꺾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주 말부터 폭염 진로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삼가고 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자주 마셔 달라"고 당부했다.

중·고 개학 '폭염 비상'

전남 해수욕장 폐장 연기

영광 가마미 등 19곳 다음달 중순으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최근 일제히 개학했으나 연일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고등학교들은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학생들의 야외 활동을 자제시키는 등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 교실당 학생 수가 40명이나 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에도 불구하고 오후가되면 상당수는 더위를 이기지 못해 땀을 흘리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무더위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두통을 호소해 담임 교사들도 평소보다 학생들의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야외 활동 및 수업, 야외 운동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심지어 광주체육중도 야외 운동장에서 하는 종목의 경우 더위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광주지역 중학교의 한 교사는 "아무리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학생들의 등에서 땀이 흐른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살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지역 해수욕장들이 속속 폐장일을 연기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은 당초 22일 폐장하기로 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도내 64개 해수욕장 가운데 19개가 폐장일을 다음달 중순까지로 미뤘다.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는 해수욕장은 진도 가게, 무안 흥통·뚝머리·조금나무 등 4곳이며, 6일까지 개장

하는 곳은 대광·흥도·하늬늪 등 신안 지역 12개다.

또 지난 5월 20일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완도 신지 명사실리와 신안 증도의 우전해수욕장은 다음달 12일까지 해수욕객을 받는다.

해수욕장들이 폐장을 속속 미루는 이유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섭씨 33도를 넘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넘는 체벌은 폭행”

목포 모 중학교 자율학습시간 체벌 광주지법, 교사에 80만원 선고유예

교사가 학교에서 정한 처벌규정 이상의 체벌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송희호)는 23일 체벌 도중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목포 모 중학교 교사 M(여·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을 인정한 원심으로 벌금 8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씨가 해당 학교의 학생체벌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는 매를 이용해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를 때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내용 중 피해 학생이 체벌 중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 학생이 다친 것이 체벌보다는 평소 다소 긴장하는 학생 성격과 다른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유도선수인 피해 학생이 평소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었던 점과 체벌하기 전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 등도 '치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M씨는 지난 2008년 11월 20일 목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율학습시간에 떠들다”며 학생 9명을 불러내 길이 38cm, 폭 2cm 대나무 매로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턱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 체벌규정에는 '길이 60cm 이하, 지름 1.5cm 이내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를 이용해 둔부나 손바닥 등에 한해 5대 이내로 체벌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한편, 검찰은 “M교사의 체벌과 학생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나원침 (8101) 김장동



황주홍 강진군수 1년 구형 장흥지청, 선거법위반 혐의

6·2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2월과 4월 강진군 대구면 등 3개 지역 경로당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50만원씩의 운영비를 관계공무원을 통해 지급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황군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여수 선착장 40대 여 봉사체

23일 오후 3시25분께 여주시 대경도 선착장 앞 해상에서 박모(여·42)씨가 숨진 채 물에 떠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지문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박씨는 전남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찾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찜질방서 여대생 몸 더듬다 '덜미'

○~40대 영업용 택시기가 찜질방에서 음식 등을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내던 20대 여대생들의 몸을 더듬다 경찰서행.

○~2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가 주모(47)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모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광주 모 대학 3년 A(여·22)씨 등 2명의 팔과 다리를 만졌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이날 새벽 0시께 A씨 등을 태워 찜질방에 내려준 뒤 영업을 마치고 찜질방에 뒤따라 들어가 같이 어울리다 이들이 잠들자 범행.

제자에 위증 강요·동료 보복 폭행

조선대 교수 구속 기소

교수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현직 교수가 제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동료 교수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3일 제자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증명한 혐의(위증 교사 등)로 조선대학교 교수 S(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K(37)씨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S씨는 자신의 조교였던 K씨에게 '2007·2008학년도 연구보조수당 395만원을 S씨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S씨의 지시없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증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또 자신에 대한 채용비리의혹을 제기한 데 앙심을 품고 동료 교수를 보복 폭행한 혐의(특가범상 보복죄)도 받고 있다. S씨는 지난 6월 11일 모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 P(55)씨를 “투서와 위증을 했으니 교도소에 넣겠다”고 위협하며 걸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한편, S씨는 2007년 1학기 전임교원 공채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지원자인 J(55)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S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현 여수시의원 4명 수뢰 시인

경찰, 돈 건넌 주씨 구속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의 '여수시 야간경관조명 사업 비리 연루 의혹'에서 촉발된 여수시의원들의 수뢰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수경찰은 23일 “오 전 시장의 측근 주모(67)씨로부터 시정 협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시의원 10명 중 4명이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날 증

뇌물 전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7~8월께 여수시의원 16명에게 현금 50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 3명과 시의원 3명, 낙선자 4명 등으로 확인됐다. 주씨는 또 나머지 6명 중 2명은 돈을 줬으나 반환했고, 4명은 금품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